

고대 갈석산의 위치 연구

장우순*·문치웅**

I. 머리말

II. 연구대상과 방법

III. 계현과 갈석산의 위치

IV. 맺음말

【국문초록】

전국시대 연나라 도읍인 계현은 연하도 유적, 수성 유적 등의 고고학적인 성과와 문헌의 기록 등에 근거하여 지금의 중국 하북성 보정시 역현에 위치한 연하도로 밝혀졌다.

갈석산은 고대 중국의 국가와 동이계열 국가의 경계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던 산으로 장성유적과 갈석산 앞에 세워졌다는 황금대 유적, 중국의 고대문헌에 기록된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역현 인근에 위치한 태항산맥의 최북단인 백석산이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갈석산에서 발원하여 계현을 감싸고 흐른다는 요수는 백석산에서 발원하여 역현을 감싸고 흐르는 거마하로 추정하였고, 보정시 역현의 남쪽에 위치한 서수현 수성진에는 연장성의 흔적과 수성의 유적이 남아 있어서 이 곳을 낙랑군 수성현의 흔적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 홍익인간재단 책임연구원

** 홍익인간재단 연구원장

살펴본 결과 계현, 갈석산, 요수의 위치가 요녕성이나 하북성 북부가 아닌 하북성의 중부나 남부지역에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들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한국의 연구자들이 고조선이나 고구려의 영역을 과도하게 축소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 역시 파악할 수 있었다.

※ 주제어 : 갈석산, 백석산, 요수, 계현, 연하도, 고조선, 고구려.

I. 머리말

최근 국내에서는 碣石山, 遼水, 淇水 등의 위치를 두고 전에 없던 활발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 지명은 東夷와 華夏의 고대사 영역을 가르는 기준으로 인식되어왔기 때문에 지난 천여 년 간¹⁾ 끊임 없이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문헌에 따르면 碣石山은 남북으로 뻗은 太行山脈을 경계로 동쪽의 동이와 서쪽인 中原의 영역이 나뉘는 곳에 위치하여 古朝鮮 계열의 국가와 中原의 국가들을 구분하는 경계의 역할을 하였다. 때문에 碣石山은 그곳을 중심으로 양 진영의 세력과 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고 전개되었는지를 살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遼河文明의 중원 전파나 중원문화의 동북 이동을 살필 수 있는 교량점이 바로 碣石山이다. 구체적으로 전국시대에는 중원의 국가와 古朝鮮, 漢代에는 漢과 古朝鮮, 三國과 南北朝 및 隋·唐代에는 이들 국가와 高句麗가 이곳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하면서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교류하며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였다.

최근 한국 학계에 제기되고 있는 碣石山의 위치로는 河北省 秦皇

1) 최초의 논쟁은 적어도 高句麗가 中原의 국가들과 대립을 시작하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島市 昌黎縣 碣石山, 河北省 保定市 涿源縣 白石山, 山東省 濱州市 無棣縣 碣石山, 河北省 石家庄市 藁城區 九門 無此山 등의 네 가지 설이 있다.²⁾ 최근의 높은 관심에 비한다면 과거 학계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그 양도 부족하지만 내용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마저도 碣石山을 독립 주제로 설정한 전문적인 연구가 아닌, 다른 주제, 주로 古朝鮮의 강역이나 漢四郡의 위치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근래 들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古朝鮮의 영역’을 독립적인 연구의 영역으로 개척하면서, 꾸준히 연구활동과 논쟁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그러한 연구자들로 윤내현, 공석구, 복기대, 오현수, 김종서, 김진경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의 연구는 해당 분야를 전문적인 연구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그 논의를 확장하는데 작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윤내현은 중국문헌과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樂浪郡을 遼西로, 大遼水를 灤河로, 碣石山을 秦皇島市 昌黎縣의 碣石山으로 파악하였다.³⁾ 그는 이전 시기와 구분되는 새로운 관점으로 한국 상고사의 인식 변화를 주도하였다. 하지만 그의 연구에서는 明代 이후에 굳어진 漢族 중심의 동북아 영역관이나 역사관의 흔적들이 종종 발견되며, 그 결론 역시 원전문헌들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공석구는 문헌들을 시기별로 분석하여 문헌의 신뢰성과 오류가능성을 파악하고, 樂浪郡 遂城縣을 遼西로 추정하였다.⁴⁾ 근본적인 접근

2) 이밖에 한반도를 碣石山의 위치로 지목한 연구나, 河南省, 陝西省 등을 지목한 연구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 주장은 그 근거를 원전문헌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논의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윤내현, 『고조선 연구』, 상·하, 서울, 만권당, 2015~2016.

4) 공석구, 「진 장성 동단인 낙랑군 수성현의 위치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제

시각과 결론에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문헌의 신뢰도를 파악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공석구는 천관우가 창시한 교치설⁵⁾을 계승하여 평양에 있던 樂浪이 遼西지역으로 僑置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단지 추론에 불과할 뿐 문헌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설로서의 위상과 엄밀함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석구를 비롯한 일부학자들이 주장하는 ‘僑置說’에 대해서는 이미 복기대가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을 한바 있다.⁶⁾

복기대는 漢四郡의 초기 위치가 河北省 중북부였으며, 시대에 따라 이들이 이동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西晉 때에 동북으로 최대한 옮겨진 것으로 보았다.⁷⁾ 그의 연구는 어떠한 경우라도 樂浪郡이 한반도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한다. 그의 관점을 따른다면 碣石山은 河北省 중북부에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漢四郡의 교치설을 비판한 그의 연구는 정작 그 자신이 제기한 漢四郡 이동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왜곡이나 조작의 우려가 있는 『漢書』 이후의 사서들로 위치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오현수는 河北省의 碣石을 인지하면서도 古朝鮮의 강역을 遼河 이 동으로 파악하고, 碣石山을 遼寧省 平山으로 비정하였다.⁸⁾ 그의 연구

81집, 한국고대사학회, 2016, 221~262쪽.

5) 천관우, 『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1989.

6) 복기대, 「한사군의 인식에 관한 연구1-설치와 교치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몽골학』 제49호, 한국몽골학회, 2017, 49~94쪽, 복기대는 한사군의 교치의 주체가 없고, 중국의 문헌에서 한사군의 교치에 대한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당시의 동북아 정세와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서 교치설은 검토의 가치가 없다고 보았다.

7) 복기대, 앞의 글. 90쪽.

8) 오현수, 「고조선 형성과 변천과정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는 비교적 합당해 보이는 세부적인 연구의 과정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론 간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김중서는 기존 학설과 연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학설들이 객관, 실증적인 방법으로 위치를 비정하지 못한 한계를 지적하였다. 또 스스로 개발하였다는 거리비교방법, 수학적위치고증방법 등을 이용, 漢四郡과 衛滿朝鮮이 遼河 서쪽에서 河北省 동부에 이르는 지역에 있었으며, 고대지명들이 적어도 1천여 리에서 수천 리 동쪽으로 이동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⁹⁾

김진경 역시 김중서와 마찬가지로 선행연구들이 무시한 사서의 조작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또 『後漢書』, 『舊唐書』에 기록된 각 지역의 거리를 굴곡지수를 적용, km로 환산·비교하여 두 책 모두 조작되었음을 밝혀내고, 礪石山의 위치를 山西省 屯留縣 남쪽 지역으로 비정하였다.¹⁰⁾ 그는 김중서와 마찬가지로 수학적 사고를 접목한 연구기법을 도입하였지만 그 결론이 원전문헌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해석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들의 연구는 일정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불문율로 치부되었던 한반도 중심의 역사관을 탈피하는데 기여하였고, 고대사 연구의 새로운 틀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여는 데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그 업적을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가 이전의 논의들과 마찬가지로 원전문헌이 아닌 조작의 가능성이 높은 후대의 문헌들과 막연한 추론에 기대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박사학위논문, 2014.

9)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위치 비정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0) 김진경, 「고대 요수 위치의 비정에 관한 연구- 한부터 요까지」,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국학박사학위논문, 2012.

본고는 기존 연구들이 중시하지 않았던, 그래서 합당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게 하였던 문제의 핵심인 원전문헌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대의 지명 碣石山의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대상과 방법

본고에서 연구할 대상인 碣石山은 중국의 상고시대부터 적어도 당나라 때까지 존재하였던 碣石山이다. 여러 문헌에 碣石山이 등장하지만 적어도 당나라 이전까지는 문헌의 기재 내용으로 보았을 때 모든 문헌이 동이와 경계선에 있는 한 곳의 碣石山을 지칭하고 있다.

碣石山, 遼水, 淇水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하나의 지명은 다른 지명을 찾는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특히 碣石山은 遼水の 발원지, 長城의 동단, 薊縣의 인근, 黃河·渤海·太行山이 만나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추정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 다시 말한다면 碣石山은 遼水, 淇水, 黃河, 太行山, 薊縣 등 여러 古地名을 서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헌을 살펴보면 고대사의 오랜 쟁점인 樂浪郡은 碣石山이 위치한 곳이다.¹¹⁾ 燕都 薊縣도 碣石山과 관련이 있으며,¹²⁾ 遼水 또한 그 발원처인 碣石山¹³⁾을 알아야 찾을 수 있다. 秦長城의 동단을 찾기 위해서도 ‘長城이 시작된 碣石山’¹⁴⁾을 먼저 밝혀야 한다. 이렇게 많은 고

11) 『通典』, 「州郡」, “碣石山在漢樂浪郡遼城縣,長城起於此山”

12) 『漢書』, 「地理志」, “薊南通齊趙, 渤碣之間一都會也”; 『史記』, 「貨殖列傳」, “夫燕亦渤碣之間一都會也. 南通齊趙東北邊胡”

13) 『淮南子』, 「「墜形訓」, “遼水出碣石山自塞北東流直遼東之西南入海”; 『山海經』, 「北山經」, “碣石之山繩水出焉而東流注於河”

대의 중요 지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碣石山은 동아시아 고대사의 여러 쟁점을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이처럼 여러 역사적 사실과 이어져 있고, 그 해석의 파급효과가 큰 碣石山의 위치를 과학적으로 비정하는 것은 한국 고대사가 상상과 추론에 갇혀있던 과거의 연구 관행을 벗어버리고 합리적인 과학연구의 영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결과제의 하나이다.

본고는 이해의 편의를 고려하여 우선 薊縣의 위치를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碣石山의 위치를 찾고, 薊縣과 碣石山의 위치가 확인되면 다시 이를 활용하여 遼東과 襄平 등을 확인하는 순서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한편 문헌에는 이들 지명이 별도로 언급된 경우보다 한데 묶여 있거나 서로 맞물려 설명되어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를 분석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고증의 순서에도 적당한 방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본고는 문헌의 언급 빈도나 기준점으로서의 시인성 등을 고려하여 고증의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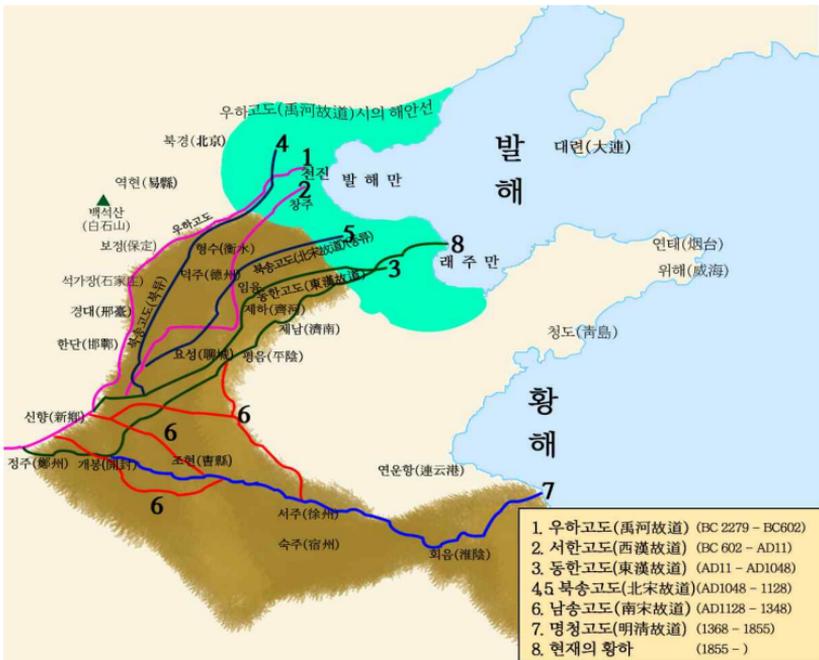
고지명을 연구할 때는 반드시 과거의 지형변화를 감안하여야 한다. 기록이나 지질·지리학적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시대별 지형변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만약 이러한 지형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결코 의미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

우선 河道가 변할 수 있다. 평야지대라면 더욱 그 가능성이 높다. 黃河는 戰國時代에 山東省 東營이 아닌 북으로 200km 정도 떨어진 天津市로 흘렀고, 당시의 天津 대부분과 北京의 남부지역은 바다였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하도가 변하다가 淸 말기에 이르러 지금의 모습으로 고정되었다. 黃河와 太行山脈 사이에는 폭 50km에서 100km에 불과한 동서로 좁고 남북으로 긴 평지가 있고, 그 동쪽으로 遼澤

14) 『通典』「州郡」, “碣石山在漢樂浪郡遂城縣, 長城起於此山”; 『晉書』「地理志」, “樂浪遂城縣有碣石山長城所起”

인 거대한 습지가 조성되어 있었는데 이 습지 역시 시기별로 규모가 달라졌다. 황하 외에 평야를 지나는 많은 하천들 역시 수시로 물길 바뀌어 때로는 黃河로 흘러들고, 때로는 渤海로 직접 유입되기도 하였다.

육지의 지형 역시 쉽게 변한다. 특히 해안이나 평야지대의 땅은 하천의 퇴적작용으로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거나 새롭게 생겨난다. 특히 요수, 갈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河北省의 石家庄, 保定, 天津, 北京, 創州 등의 상당부분은 바다나 갯벌이었다가 근대 이후에야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림 1〉 黃河의 河道 변화¹⁵⁾

15) 「黃河下游河道變遷」, 中國水利部黃河水利委員會, 2011.

<그림 1>은 黃河의 하도변화를 시대별로 나타낸 것으로 크게 여덟 번의 서로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현재 육지인 天津, 創州, 山東省의 동해안 상당부분이 당시에는 바다였음도 알 수 있다. 黃河의 하도를 따라 짙은 갈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黃河가 다른 하천들과 만나면서 생긴 퇴적층으로, 퇴적 당시에는 그 일대에 진흙탕 및 늪지대가 조성되어 있었다. 이 퇴적지대를 따라 遼澤이 형성되었으며, 특히 磁河, 瀋瀧河, 唐河, 易水, 拒馬河 등이 한 곳에 모여 거대 습지를 이루는 河北省 保定市 安新縣 일대가 요택의 중심지였다.

고지명을 고증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근거는 역시 원전 문헌의 내용이다. 특정 사건 이전에 이해당사자가 아닌 관찰자에 의해 기록된 내용은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서술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상당한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가지게 된다. 하나가 아닌 복수의 원전 문헌으로 입증이 된다면 더욱 큰 신뢰를 확보할 것이다. 만약 사건이 일어난 후에 생산된 기록이라면 증거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고, 이해당사자가 직접 생산한 자료라면 그 가치는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書經』, 『山海經』, 『淮南子』, 『史記』, 『鹽鐵論』 등의 원전문헌을 갈석산 고증의 주된 텍스트로 활용하였다. 본고에서 원전문헌이란 중국과 동이족 계열의 고구려 등이 영역을 두고 첨예한 경쟁에 돌입하는 위·진·남북조 이전에 만들어진 문헌을 뜻한다. 시기적으로 서한시기 및 그 이전의 문헌들을 지칭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원전 기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 하천 등의 자연지형물이다. 원전의 지명이 사라졌어도 인근의 자연지형물이 남아있다면 이들을 통해 지명을 유추해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이때는 반드시 지형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고는 문헌에 礪石山과의 관계가 기록된 자연지형물인 渤海, 黃河, 遼水 등을 살펴 보았다.

또한 찾고자 하는 지역 인근에 만들어진 대형 인공구조물도 중요한 증거가 된다. 그것이 원전 문헌에 등장한다면 그 증거능력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소형 구조물이나 단순 유물 등은 조작의 가능성이 높아 유력한 증거로 활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고는 長城, 燕下都, 黃金臺 등을 고지명을 입증하는 인공구조물로 참고하였다.

새로 개발된 과학지식이나 기술, 고고학적 성과 등도 고지명을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본고는 燕下都和 黃金臺에 대한 중국의 고고학적 성과를 반영하였으며, 중국의 각종 기록과 지질, 지형자료를 참고하였다.

III. 계현과 갈석산의 위치

1. 계현의 위치

‘薊’라는 글자는 『康熙字典』에 “지금의 涿郡 薊縣이다.”라고 되어 있다.¹⁶⁾ 涿郡은 지금의 保定市로 기록은 薊縣이 北京 서남의 保定市 일대임을 설명하고 있다.

『史記』 「貨殖列傳」은 “대개 燕은 또한 渤海와 碣石山 사이의 하나의 도회이다. 남으로 齊·趙와 통하고, 동북으로 胡와 접하였다.”¹⁷⁾고 하였다. 『漢書』 「地理志」는 “薊는 남으로 齊·趙와 통하며, 渤海와 碣石山 사이의 하나의 도회이다.”¹⁸⁾라고 하였고, 顏師古는 이를 주석하

16) 『康熙字典』, ‘薊’항의 註, “今涿郡薊縣”, 한국의 중국어사전 대부분에는 “북경의 서남쪽에 있으며, 연나라의 수도였다.”라고 적혀있다. 중국어 사전의 기본 내용은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중국에서도 薊縣이라는 곳이 北京의 서남쪽에 있는 保定市 일대라는 인식이 보편적이었음 알 수 있다.

17) 『史記』 「貨殖列傳」, “夫燕亦渤海之間一都會也. 南通齊趙東北邊胡”

여 “薊縣은 燕의 도읍이다. 渤는 渤海이고, 碣은 碣石山이다.”라고 하였다.¹⁹⁾

정리하면 碣石山과 渤海 사이의 도회이고, 남으로 齊·趙와 통할 만큼 가까우면서 동시에 동북으로는 胡와 인접한 곳이 바로 燕, 혹은 燕都 薊縣이다. 『史記』의 기록에서 薊縣이 아닌 燕이 남으로 齊·趙와 통하는 동시에 북으로 胡와 접한다고 한 부분은 燕의 영역이 남북의 길이가 매우 짧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燕이 매우 작은 소국이었음을 의미한다.²⁰⁾

실제로 고대의 薊縣을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중국에서 이미 1929년부터 수십 년간 발굴을 진행한 ‘燕下都’ 유적을 燕의 전성기 昭王 때의 도읍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²¹⁾

18) 『漢書』 「地理志」, “薊南通齊趙, 渤碣之間一都會也”

19) 『漢書顏師古注』, “薊縣燕之所都也, 渤渤海也碣碣石也”

20) 燕昭王 때에 齊를 잠깐 격파한 사실을 들어 燕을 강국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燕은 전성기였던 昭王 때나 文侯 때에도 스스로 힘이 없는 소국임을 한탄한다(『史記』 「蘇秦列傳」, 『戰國策』 「燕策」 등을 참조). 또 齊를 기습하여 잠시 곤경에 빠뜨리지만 이 시기 燕은 秦, 楚, 三晉(韓·魏·趙) 등 齊를 제외한 戰國七雄 모든 국가와 연합하여 齊를 공격한 것이며, 몇 년 지나지 않아 齊가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한다는 사실이 『史記』 「燕昭公世家」에 기록되어 있다. 객관적인 상황으로 볼 때 燕이 강대국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燕은 昭王 당시 잠시 세력을 확장한 것은 맞지만 昭王 이전이나 이후에도 강대국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史記』 「燕昭公世家」의 후기에서 사마천은 “燕外迫蠻貊內措齊晉崎嶇疆國之間最爲弱小幾滅者數矣(연은 밖으로 만·맥과 접하였고, 안으로 제·진 사이에 놓여있는 등 강국 사이에 위태롭게 끼어있는 가장 약소한 나라였다. 몇 차례나 거의 멸망할 뻔하였다)”라고 하여 연을 아주 약한 약소국으로 평가하고 있다.

21) 중국과 한국에는 天津이나 北京의 동쪽에 薊縣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연구자들이 상당수 있다. 하지만 이는 근래의 주장일 뿐이다. 天津市 북쪽에 있다는 薊縣은 ‘渤碣之間의 都會’에 해당될 수 없으며, 燕의 도성유적 역시 발견된 적이 없다. 근대시기의 『中國古今地名大辭典』이나 비교적 최근에 나온 『中國古今地名對照表』 등과 같이 중국의 고대지명을 다룬 대부분의 지명 사전에서 薊縣을 北京 서남쪽의 易縣 인근으로 지목하고 있다. 일본의 교과

燕下都是 秦開가 東胡로부터 1000리의 땅을 탈취하고 만든 昭王 때의 도성으로 河北省 保定市 易縣에 위치하고 있다. 서쪽에 太行山脈이 솟아있고, 서북, 북, 동으로 拒馬河가 도성을 에워싸고 흐르며, 남으로 易水가 해자의 역할을 하여 외적을 방어하는데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성은 장방형으로 동서 8km, 남북 4km이며, 戰國時代의 도성 중 가장 크다. 성 중간에 동·서를 가르는 격벽이 있고, 동쪽에 궁전, 수공업, 백성거주, 장묘, 河道구역이, 서쪽에 방어를 위한 附城이 자리잡고 있다. 50여 년간 3800 여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연의 와당과 화폐인 燕刀(명도전) 등이 다수 포함되어있어서 중국 학계에서는 일찍부터 燕의 전성기 도읍이라 주장하고 있다.²²⁾

<그림 2>는 薊縣과 본고가 礪石山으로 추정하는 白石山을 나타낸 지도이다.

『太平寰宇記』는 “秦始皇이 燕을 멸한 후 36군을 설치하였는데 燕의 도읍 및 그 서쪽에 설치한 것이 上谷郡이다.”²³⁾라고 하였다. 당시

서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기재하여도 사실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최근 동북공정이나 문명탐원공정 이후 중국에서 발표한 연구결과나 이를 수용한 중국의 교과서, 백과사전 등의 기재를 무조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康熙字典』이나 한국의 수많은 중국어사전들, 『中國古今地名大辭典』, 『中國古今地名對照表』 등 과거의 대부분의 자료에 기재된 것처럼 薊縣은 北京의 서남쪽 易縣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 22) 1) 黃景略, 「燕下都城址調查報告」, 『考古』, 1962 ; 2) 河北省文物研究所, 『燕下都』, 北京, 文物出版社, 1996 ; 3) 石永士, 『燕下都故城初步研究』, 河北省文物研究所, 1984 ; 4) 『百度百科』 「燕下都遺址」, “... 在河北省易縣境內。燕下都遺址是已知已發現的戰國都城最大的一座, 建于戰國末期燕昭王時代(... 河北省 易縣 境內에 있다. 燕下都유적은 이미 알려지고, 발견된 전국시대 도성 유적 중 가장 큰 것의 하나다. 전국말기인 燕昭王 때 지었다)”, 燕下都是 서쪽에 방어시설이 있고, 易水 북안에 위치하여 동북의 古朝鮮, 東胡보다 中原의 국가들을 막기에 적합하다. 국력이 가장 약한 나라의 도성치고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도 燕의 도읍이 아닐 가능성이 큰 유적이다.
- 23) 『太平寰宇記』 「河北道」 「幽州」, “始皇滅燕置三十六郡以燕都及燕之西陲爲上谷郡”

의 上谷郡은 지금의 保定市로²⁴⁾ 역시 保定市 易縣 인근이 燕都 薊縣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그림 2〉 薊縣과 礪石山인 白石山

薊縣에 대해 “秦이 설치하였다. (薊縣의)고성은 오늘의 河北省 大興縣의 서남에 있다.”고 언급한 『中國古今地名大辭典』의 기록²⁵⁾도 薊縣이 北京 서남에 위치한 大興區로, 大興區의 서남 30~40km 지점에 易縣이 위치하고 있다.

燕下都가 燕의 도성이라는 중국학계의 주장을 100% 믿을 수는 없

24) 臧勵齋 等, 『中國古今地名大辭典』, ‘上’, ‘上谷郡’, 上海商務印書館, 1931. 42 쪽. “秦滅代. 置上谷郡, 舊保定, 易州, 宣化, 及順天, 河間之一部 … (진이 대를 멸하고 상곡군을 설치하였다. 옛 保定, 역주, 선화, 순천, 하문의 일부이며 …)”라 하여 上谷郡이 保定市 易縣에서 太原의 북쪽인 代縣 일대까지였음을 말하고 있다. 保定은 上谷의 중심지로 지금도 중국인들은 保定市를 上谷이라 부른다.

25) 臧勵齋 等, 앞의 책, ‘薊’, ‘薊縣’, “秦置. 故城在今河北省大興縣西南”

지만 『史記』, 『漢書』, 『康熙字典』이나 『中國古今地名大辭典』 등의 기록들을 볼 때 적어도 保定市 易縣 일대에 薊縣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3장에서 연장성의 위치와 관련해서 薊縣의 위치를 다시 명확하게 살펴볼 것이다.

2. 갈석산의 위치

앞장에서 薊縣이 燕下都임을 알았다. 『史記』와 『漢書』가 ‘渤海之間’에 薊縣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燕下都 동쪽에 있는 渤海의 반대편인 서쪽에서 碣石山을 찾으면 된다. 마침 燕下都 서쪽엔 太行山脈이 있어 높이 2000m가 넘는 산들이 수두룩하다. 이 산들 중 하나, 혹은 일부가 碣石山일 것이다.

碣石²⁶⁾山은 경계나 특정 사실을 알리는 표지로, 바위에 일정한 문구를 새긴 산이다. 때문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다. 碣石山은 중국의 문헌에서 ‘碣’, 혹은 ‘碣石’, ‘碣石山’ 등으로 표현된다. 예를 든다면 『史記』에는 ‘碣’로, 『書經』과 『漢書』, 『鹽鐵論』에는 ‘碣石’으로, 『山海經』, 『淮南子』 등에는 碣石山으로 나온다. 이들 명칭은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모두 하나의 지명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후대에 나온 『通典』, 『舊唐書』, 『新唐書』에 이르기까지 碣, 碣石, 碣石山 등은 모두 같은 의미로 혼용되고 있으며, 碣石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적어도 이들 문헌을 기준으로 볼 때 碣石山은 碣, 碣石 등과 함께 사용하여도 그 의미에 차이가 없다.

본고가 찾은 碣石山은 古朝鮮, 高句麗와 관련하여 의미를 갖는 곳으로 『書經』, 『山海經』, 『史記』, 『淮南子』, 『鹽鐵論』, 『通典』 등에 등

26) 刻石의 일종으로, 네모난 碑에 대비되는 둥근 모양의 것을 말한다. 이 두 개를 합쳐 碑碣이라 한다.

장하는 碣石山이다.

『書經』 「夏書」 ‘禹公’ 11장은 “島夷는 가죽옷을 입고, 오른쪽으로 碣石을 끼고 黃河로 들어온다.²⁷⁾”고 하였다. 이 기록에 따르면 碣石山은 黃河 하구의 북안에 있어야 한다. 또 ‘禹公’ 84장은 黃河가 “太行山에서 碣石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고 하였는데²⁸⁾ 이는 黃河가 바다와 만나는 곳에 碣石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山海經』 「北山經」은 “繩水가 발원하여 동으로 흘러 黃河로 들어간다.”고 하였다.²⁹⁾ 碣石山에서 발원한 강이 바다에 이르지 못하고 黃河로 합류하게 된다는 것이다.

『淮南子』 「墜形訓」은 “遼水가 碣石山에서 나와 요새로부터 북쪽과 동쪽으로 흐르다가 바로 遼東의 서남을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³⁰⁾”고 하였고, 『鹽鐵論』 「險固」는 “燕은 碣石山으로 막혔으며, 邪谷에 의해 끊어지고 遼水로 둘러싸였다.³¹⁾”고 하였다. 『淮南子』나 『鹽鐵論』의 기록은 碣石山과 薊縣의 관계가 단순히 하나의 산과 그 인근에 있는 도회의 관계가 아님을 보여준다. 碣石山에서 遼水가 발원하며, 이 遼水가 薊縣을 둘러싸고 있어야 한다. 즉 碣石山과 薊縣은 반드시 遼水를 통해 관계를 맺고 있어야만 한다.

살펴본 문헌들의 내용을 토대로 碣石山의 조건들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 가) 黃河와 인접하고, 黃河의 入海處에 있다. 渤海에서 黃河에 들어갈 때 오른쪽에 있다(『書經』).

27) 『書經』 「夏書」, ‘禹公’, 11장, “島夷皮服, 夾右碣石入於河”

28) 『書經』 「夏書」, ‘禹公’, 84장, “太行恒山至于碣石入于海”

29) 『山海經』 「北山經」, “碣石之山繩水出焉而東流注於河”

30) 『淮南子』 「墜形訓」, “遼水出碣石山自塞北東流直遼東之西南入海”

31) 『鹽鐵論』 「險固」, “燕塞碣石絕邪谷繞援遼水”

- 나) 碣石山과 渤海 사이에 燕(薊縣)이 존재하여야 한다(『史記』, 『漢書』).
 다) 남쪽으로 齊·趙와 인접해야 한다(『史記』, 『漢書』).
 라) 遼水가 발원하고, 遼水가 계현을 둘러싸고 있어야 한다(『山海經』, 『淮南子』, 『鹽鐵論』).

위의 조건들을 기준으로 앞서 소개한 기존 주장들을 검토해보자.

윤내현은 왜곡된 사료 탓에 北魏·北齊의 장성과 秦·漢代의 장성을 혼동하였다. 그의 말대로 碣石山을 昌黎縣 碣石山으로 본다면³²⁾ 나)의 조건인 燕都 薊縣은 존재할 수 없다. <그림 3>처럼 昌黎縣³³⁾ 碣石山은 渤海와 붙어있어서 碣石山과 渤海 사이에 도회가 될 만한 땅이 없기 때문이다. 또 齊·趙와의 거리도 1000리 이상 떨어져 있어 남으로 이들 나라와 통해야 하는 다)의 조건도 충족할 수 없다. 昌黎縣 碣石山 인근에 있어서 遼水라고 주장되는 灤河 역시 이 산에서 발원하지 않으며, 灤河가 둘러싸고 있는 도회 역시 찾을 수 없으므로 라)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昌黎縣 碣石山 갈석산은 燕都 薊縣과는 무관한 산이다.

濱州市 無棣縣 碣石山은 예부터 항해의 표지가 되었던 산으로 渤海와의 사이에 적당한 공간이 있어 하나의 도회가 들어서기에 적당하다. 하지만 지금의 땅은 漢 이후에 퇴적된 것으로 당시에는 바다였다. 즉 나)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 또 남으로 齊와 가깝지만 趙와 통한다고는 볼 수 없어 다)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고, 평야지대여서 하천이 발원해야 하는 라)의 조건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無棣縣

32) 윤내현, 『사료로 보는 우리 고대사』, 서울, 만권당, 2017.

33) 『通典』 『州郡』 ‘易州’, “易州今理易縣春秋至戰國屬燕置上谷郡書曰在谷之上頭故曰上谷漢屬涿郡後漢因之晉爲范陽國。後魏亦爲上谷郡隋初置昌黎郡後兼置易州煬帝初州廢置上谷郡大唐因之領縣八”, 易縣에 隋나라가 昌黎郡을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昌黎郡은 易州, 혹은 上谷郡에 설치된 것으로 후대의 문헌들에 나오는 昌黎는 隋나라 때 易縣 및 碣石山 인근인 上谷에 설치된 昌黎郡이 동북으로 이동한 것이다.

碣石山 역시 薊縣과는 관계가 없다.

일각에서는 『史記正義』가 『全國策』을 인용하여 “碣石은 九門縣에 있다. 지금의 常山郡에 속한다. 대개 따로 있는 碣石과 이름이 같다. 지금의 九門의 無此山이다.³⁴⁾”라고 한 기록과 石家庄 남쪽에 常山郡이 있고, 동쪽 藁城區에 九門이 존재한다는 것을 근거로 石家庄 藁城區에 碣石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藁城區에서 渤海까지는 수 백리여서 그 사이에 하나의 도회를 특정하기 어려워 나)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 또한 평야여서 遼水가 발원할 수 없으므로 라)의 조건에도 부합할 수 없다. 당시의 黃河 하구와도 수 백리 떨어져 있어서 가)의 조건도 충족할 수 없다. 단지 남으로 齊·趙와 통한다는 다)의 조건만 충족할 뿐이다. 따라서 九門縣에 碣石山이 있다는 주장도 바른 해석이라 볼 수 없다. 다만 九門縣 서쪽의 五臺山을 북동쪽으로 연결된 白石山까지 연결하여 碣石山이라고 불렀다면 無此山은 白石山이나 五臺山の 또 다른 이름일 수 있으며, 이 모두 碣石山の 범위 안에 드는 산들일 가능성이 있다.³⁵⁾

『書經』, 『山海經』, 『淮南子』, 『史記』, 『漢書』, 『鹽鐵論』이 말한 碣石山은 바로 燕의 도성 유적으로 알려진 燕下都 유적이 발굴된 河北省 保定市 易縣의 서남에 위치한 白石山³⁶⁾이다.

현재 易縣 동쪽의 天津이 당시에는 <그림 1>과 같이 바다였고, 해안선이 100킬로미터 가까이 내륙으로 들어와 있었다. 때문에 당시 保定과 易縣의 동쪽으로는 黃河의 하류와 渤海가 펼쳐져 있었다. 따라

34) 『史記正義』. “戰國策曰碣石在九門縣今屬常山郡蓋別有碣石與此名同今驗九門無此山”

35) 白石山과 五臺山은 太行山脈의 가장 북단에 해당하는 산들로 동북과 남서로 연결되어 있다.

36) 河北省 保定市 涿源縣에 있다. 太行山의 북쪽에 있으며 면적은 54km² 높이는 2096m에 달한다.

서 나)의 조건인 渤海와 碣石 사이에 도회가 있어야 하는 조건에 부합한다. 또 渤海에서 黃河로 들어갈 때 白石山이 오른쪽에 있으므로 가)의 조건에도 부합한다. 白石山은 서남으로 趙, 동남으로 齊와 가까우므로 다)의 조건도 충족한다. 한편 白石山에서 발원한 拒馬河는 발원하여 북과 동으로 흘러 평야로 내려오고, 易縣을 둘러싸고 흐른 뒤 다시 동남으로 흘러 渤海로 들어간다. 이 拒馬河가 바로 고대의 遼水로 白石山은 라)의 기준에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처럼 여러 문헌의 기록과 일치하고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河北省 保定市 易縣 일대와 白石山이 燕都 薊縣과 그 인근에 있어야 하는 碣石山이다. <그림 3>은 각각의 碣石山을 지도에 표시한 것이다.



<그림 3> 白石山과 각지의 碣石山들

한편 『通典』 「邊方」 ‘東夷’는 “『尙書』를 따르다면 ‘夾右碣石入於河’의 右碣石은 黃河가 바다에 닿는 곳이며, 지금의 北平郡 남쪽 20여 리 지점에 있는, 즉, 高句麗에 있는 것은 左碣石이다.”³⁷⁾라고 하였다. 우선 北平郡이 어디인지 살펴보자. 『漢書』 「匈奴」는 “다음해 봄,

右北平과 定陽에 匈奴 수만 기가 침입하여 천여 명을 죽이고 약탈하였다.”³⁸⁾고 하였고, 『通典』 「邊防」은 “다음 해 봄 지금의 北平인 右北平과 지금의 馬邑인 定陽에 각각 匈奴 수만 기가 침입하여 천여 명을 죽이고 약탈하였다”³⁹⁾고 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匈奴가 침입한 곳이 右北平과 定陽이므로 이 두 곳은 멀리 떨어진 곳일 수 없다. 『通典』의 기록은 漢代의 右北平과 定陽이 唐代에는 北平과 馬邑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4>는 ‘大清廣輿圖’이다.



<그림 4> 大清廣輿圖

지도에는 定陽郡이 山西省 太原과 代縣 사이로 지금의 忻州市 定陽縣과 동일한 위치로 나온다. 馬邑은 代縣의 위쪽에 보인다. 두 지역이 지근거리이므로 唐이 高句麗에 승리한 후에 한 지역으로 묶였

37) 『通典』 「邊防」 ‘東夷’, “按尙書云夾右碣石入於河右碣石即河赴海處在今北平郡南二十餘里則高麗中爲左碣石”,

38) 『漢書』 「匈奴’, “明年春匈奴入右北平定襄各數萬騎殺略千餘人”

39) 『通典』 「邊防’, “明年春匈奴入右北平今北平郡定襄今馬邑郡各數萬騎殺掠千餘人”

을 가능성이 있다.⁴⁰⁾ 北平郡 남쪽의 礪石山은 당연히 白石山이다. 北平은 礪石山에서 북으로 20리 거리이므로 白石山の 소재지인 涿源縣 일대였을 것이다. 지도의 동북쪽 끝에 있는 산이 白石山인데 장성의 안쪽과 바깥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北平郡인 涿源縣은 지금의 北京에서 서남으로 100km 이상 떨어져 있다.

杜佑는 黃河와 만나는 礪石이 右礪石이고, 高句麗에 있는 礪石을 左礪石이라고 보았다. 이는 杜佑가 활동하던 唐代에 黃河가 山東省 濱州市 無棣縣 礪石山 인근에서 바다로 흘러들었기 때문에 생긴 착각이다. 無棣縣 礪石山을 『書經』의 右礪石이라 착각하였던 것이다. <그림 1>과 같이 秦·漢代에는 黃河가 唐代보다 한 참 북쪽인 天津 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갔다. 때문에 唐의 관점, 즉 長安이 있던 서남에서 바라본 두 개의 礪石山 중 高句麗에 있던 保定市 易縣의 白石山은 왼쪽에 위치하므로 左礪石, 濱州市 無棣縣 礪石山은 오른쪽에 위치하므로 右礪石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書經』에 기록된 右礪石은 오른쪽에 礪石을 끼고 黃河로 들어온다는 의미로 左礪石과 대조하여 右礪石을 따로 상정한 기록이 아니다. 左礪石, 右礪石은 杜佑의 착각이며, 杜佑의 이런 인식은 당시 高句麗의 영토가 河北省 保定市 일대를 포함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5>는 『通典』 「邊防」, 「東夷」에 기록된 左礪石과 右礪石을 지도에 표시한 것으로, 易縣을 서, 북, 동으로 감싼 하천은 遼水인 拒馬河이다.

40) 서로 50km 가량 남북으로 떨어져 있음에도 定陽을 馬邑이라 한 것은 唐代에 지명을 조금이라도 북과 동으로 옮기려고 하였던 唐의 정치적 입장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唐의 도읍인 陝西省 長安의 남쪽에서 山西省 중부로 옮겨 온 五臺山이다. 五臺山이 동북으로 이동한 후 원래의 五臺山은 太乙山으로 개명하였다. 馬邑은 장성 바깥에 위치하여 唐이 高句麗에 승리를 거두기 전에는 진출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5> 左碣石과 右碣石

다음은 역시 『通典』 「邊防」 ‘東夷’에서 杜佑가 高句麗의 영토에 대해 언급한 내용다.

基地後漢時方二千里 至魏南北漸狹 纔千餘里 至隋漸大東西六千里
 (그 땅이 후한 때에는 사방 2천리였고, 위 때에는 남북으로 점점 축소되어 천 여리였으며, 수 때에는 점차 커져서 동서로 6천리에 달하였다.)

기록은 隋와 唐이 사활을 걸고 高句麗에 대항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隋에 이르러 高句麗의 영역이 동서 6000리, 즉 3000km 이상이었다는 것은 高句麗의 동쪽 경계를 연해주로 잡아도 서쪽으로 적어도 河北省 뿐 아니라 山西, 甘肅, 新疆自治區 일부까지 高句麗의 영향 아래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한편 『水經注疏』 권11, ‘易水’편에는 碣石山과 黃金臺에 대한 다음 기록이 등장한다.

燕昭王曰安得賢士以報齊讐郭隗曰王能築臺于碣石山前尊隗爲師天下賢士必自至如其言作臺以金玉崇之號黃金臺⁴¹⁾

(연소왕이 어찌하면 현사를 얻어 제나라에 원수를 갚을 수 있겠냐고 묻자. 궤외가 왕이 갈석산 앞에 대를 짓고 나(궤외)를 높여 스승으로 삼는다면 반드시 천하의 현사들이 스스로 찾아 올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 말대로 대를 지어 금옥으로 장식하고 황금대라 불렀다.)

기록은 碣石山이 易水 인근에 있고, 燕都 薊縣 역시 이들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易水는 易縣의 남쪽을 흐르는 하천이므로 우리가 분석한대로 燕都 薊縣은 易縣에 위치한 燕下都이며, 碣石山은 易縣 인근의 白石山일 수밖에 없다. 참고로 易縣의 동남쪽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黃金臺의 유적이 발견되었다. 다음은 『中國古今地名對照表』에 수록된 黃金臺 유적에 대한 기록이다.

燕昭王招賢所筑, 在今河北易縣東南的北易水南. 今北京市, 徐水, 滿城, 定興均有黃金台, 乃后人依托.⁴²⁾

(연소왕이 현사를 모시기 위해 세웠다. 지금의 하북성 역현의 동남에 있는 북역수의 남쪽에 있다. 지금의 북경시, 서수, 만성, 정흥에도 모두 황금대가 있는데 이는 후대의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中國古今地名對照表』의 기록 역시 保定市 易縣에 있는 燕下都가 薊縣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줄 뿐 아니라 『水經注疏』의 기록이 틀림없다는 것, 그리고 易縣 인근의 白石山이 碣石山이라는 사실 역시 확인해주고 있다. 근대시기에 지어진 『中國古今地名大辭典』의 다음 문장 역시 碣石山이 易縣의 서남쪽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목한다.

「碣石, 在幽州薊縣西三十五里, 薊縣故城在今京兆大興縣西南.⁴³⁾

41) 『水經注疏』 권11, ‘易水’.

42) 薛國屏, 『中國古今地名對照表(續)』, ‘黃金臺’, 上海辭書出版社, 2014.

43) 臧勵蘇 等, 앞의 책, ‘碣’, ‘碣石山’

(갈석은 유주 계현의 서남 삼십오리에 있다. 계현의 고성은 지금의 경조 대흥현의 서남쪽에 있다.)

大興縣은 앞서 살펴본 대로 北京의 서남쪽에 위치한 大興區로 사 전의 기록은 碣石山이 薊縣인 易縣의 서남쪽 35리, 약 1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易縣의 서남쪽 18km 지점에 위치한 산은 白石山으로, 白石山이 바로 碣石山임을 말하는 기록이 다. <그림 6>은 北京, 大興, 薊縣, 碣石산의 위치도이다.



<그림 6> 北京, 大興, 易縣, 白石산의 위치

3. 양평현과 요동군

『史記』 「匈奴列傳」에는 “燕이 또한 장성을 쌓았는데, 이 성이 造陽에서 襄平에 이르며, 上谷, 漁陽, 右北平, 遼西, 遼東郡 등을 설치하여 이들로써 胡를 방어하였다.”⁴⁴⁾는 기록이 있다. 기록대로라면 장성의 동쪽 끝은 襄平이며, 遼東郡 역시 그곳에 있어야 한다.⁴⁵⁾ 만약 襄平

44) 『史記』 「匈奴列傳」. “燕亦築長城自造陽至襄平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以拒胡”

45) 燕長城과 秦長城의 동단이 일치한다는 것이 중국학계의 통설이다. 襄平은 遼東郡의 치소이다.

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면, 遼東과 遼水, 장성의 동단이 어디인지를 동시에 알아낼 수 있다.

『通典』은 당의 재상 杜佑⁴⁶⁾가 중국의 제도사를 기록한 책이다. 高唐戰爭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의 책으로 국가적으로 고구려를 적대시 하던 시기이다. 따라서 高句麗와 古朝鮮에 대해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通典』의 기록은 역으로 古朝鮮이나 高句麗의 영토를 과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고지명을 비정한다면 적어도 古朝鮮이나 高句麗의 입장에서 서서 과장을 하였다는 비판은 일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唐代의 지명에 대해 가장 정통한 문헌이므로 唐代를 기준으로 가장 정확하게 고대의 지명을 고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通典』은 고대와 현대의 지명을 연결하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唐 이전과 이후의 지명이 대대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더욱 고대지명을 唐의 지명으로 설명해 놓은 『通典』의 기록은 가치가 있다.

『通典』 「邊防」 ‘匈奴’는 “그 후 燕長 秦開가 東胡를 습파하여 천여리를 쫓아내고, 장성을 쌓아 造陽에서 襄平에 이르렀는데, 造陽은 지금의 媯川郡 북쪽이고, 襄平은 遼東의 치소로 지금의 安東府이다.⁴⁷⁾”라고 하였다. 앞은 『史記』를 인용하고, 뒤는 燕과 秦의 지명이 唐代에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한 내용이다. 장성의 동계인 襄平이 唐의 安東府라고 지목하였으니 唐의 安東府를 찾아 지금의 어디인지 확인하면 당시 장성의 동계 및 遼東, 遼水를 확인할 수 있다.

『通典』 「州郡」의 ‘兗州’는 “옛 靑州에 오늘날 군과 부를 7개 설치

46) 杜佑는 唐의 재상을 지냈으며, 司馬遷 이후 제일의 역사가로 인정받고 있다. 『通典』을 지었다.

47) 『通典』 「邊防」 ‘匈奴’. “其後燕將秦開襲破東胡卻千餘里燕亦築長城自造陽至襄平造陽在今媯川郡之北襄平卽遼東所理今安東府”

했는데 北海, 濟南, 淄川, 高密, 東萊, 東牟, 安東府이다.⁴⁸⁾”라고 하였다. 두 기록을 통해 燕의 襄平은 唐의 安東府며 옛 靑州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靑州는 전국시대 齊의 영역으로 고지도와 문헌상에 山東省 중북부로 나온다.⁴⁹⁾ 『中國古今地名大辭典』도 襄平을 高句麗가 점령한 사실과⁵⁰⁾, 平壤城에 安東都護府·安東府가 설치되었던 사실을 말하고 있다.⁵¹⁾ 사전의 설명대로라면 平壤城이 옛 靑州, 즉 山東省의 북부나 河北省의 남부에 있었으며, 唐이 이곳을 점령한 후에 安東都護府를 설치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八達嶺長城을 비롯한 北京 인근의 장성이나 山海關 등 北魏, 北齊, 明에 의해 만들어진 장성들을 燕이나 秦의 장성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하지만 八達嶺長城은 北魏 世祖 때 지어졌고, 후에 北齊, 明 등에 의해 다시 증축된 것이다.

『魏書』 「世祖本紀」의 ‘太平眞君 七年’ 기사는 “北魏의 世祖가 太平眞君 七年(446년)에 冀 四州에서 십만을 동원하여 ‘畿上塞圍’를 쌓았는데 동쪽 上谷에서 서쪽의 黃河에 이르렀다.”고 하였다.⁵²⁾ 기록은 당시 가장 북쪽에 세워진 장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 기

48) 『通典』 「州郡」 ‘兗州 上’. “古靑州今置郡府七北海靑濟南齊淄川淄高密密東萊萊東牟登安東府”

49) 『書經』 「夏書’. “靑州爲古九州之一上古爲東夷之地 … 春秋戰國之世均爲齊屬”. 靑州는 東夷의 땅으로 春秋戰國 시기 계속 齊에 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靑州는 山東城 일대를 벗어날 수 없다.

50) 臧勵齋 等, 앞의 책, ‘襄平縣’. “戰國燕地, 築長成自造陽至此, 漢置縣, 爲遼東郡治 … 後入高句麗(전국시기 연의 땅이다. 장성을 쌓아 조양에서 이곳에 이르렀다. 한이 현을 설치하였는데 요동군의 치소였다. … 후에 고구려에 속하였다)”

51) 臧勵齋 等, 앞의 책. ‘安’, ‘安東都護府’. “唐總章初平高句麗置安東都護府於朝鮮治平壤城(당의 총장 초기에 고구려를 평정하고 안동도호부를 조선의 치소 평양성에 설치하였다)”

52) 『北魏書』 「世祖本紀」 ‘太平眞君七年’. “冀四州十萬人築畿上塞圍起上谷西至於河”

록을 八達嶺에서 黃河에 이르는 장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당시 上谷은 『中國古今地名大辭典』 등의 기록에 의하면 지금의 保定市 易縣과 그 서쪽에 세워진 것이므로⁵³⁾ 八達嶺長城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곳에 세워진 것이 ‘畿上塞圍’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무튼 八達嶺長城이 北魏 때 세워졌다는 중국의 주장을 믿는다면 八達嶺長城 및 北京 인근의 장성은 北魏 한참 이전의 국가인 燕이나 秦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⁴⁾

실제로 燕長城의 동단이 발견되는 곳은 保定市 徐水區의 遂城鎮⁵⁵⁾이다.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燕長城은 그 가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특히 동단과 북단으로 확인된 곳은 발견되지 않았다. 戰國七雄 중 국력이 가장 약했던 소국 燕이 장성을 몇 겹이나 쌓을 국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赤峰이나 遼河 인근에서 발견되는 성의 흔적들은 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⁵⁶⁾ 『史

53) 臧勵齋等, 앞의 책, ‘上谷郡’. “戰國時代趙公子嘉自立爲代王. 軍上谷. 秦滅代. 置上谷郡, 舊保定, 易州, 宣化, 及順天, 河間之一部 …(전국시대 조나라 공자 嘉가 스스로 代의 왕이 되고 상곡에 진을 쳤다. 진이 대를 멸하고 상곡군을 설치했다. 옛 보정, 역주(역현), 선화 및 순천 하문의 일부다. …)”

54) 八達嶺長城 등 北京 인근의 장성들은 실제로는 明代인 1505년부터 짓기 시작한 明長城이다.

55) 樂浪郡의 遂城縣과 같은 이름이며, 遂城의 유적 역시 남아있다. 漢四郡은 후대에 조각이나 가필로 보이지만 古朝鮮 멸망 이전 樂浪에 遂城縣이라는 곳이 있었으며, 후에 遼東郡이 되면서 襄平으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燕長城과 秦長城의 동단은 같은 곳이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56) 秦이 燕을 멸할 때, 주요 戰場이 易水의 서쪽이었던 것을 보아도 燕은 保定의 북쪽 뿐 아니라 그 동쪽의 어떤 지역과도 연고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이다. 燕王이 秦에게 패한 후에 약탈로 왕이 되어 세력을 잠시 유지하였던 遼東은 우리가 지금 요동이라고 부르는 요하의 동쪽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시기의 遼東은 遼河의 동쪽이 아닌 遼水인 拒馬河의 동쪽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의 하북성 保定市 및 그 동쪽을 의미한다. 『史記』 「秦始皇本紀」의 해당 기록을 보면 燕王이 秦에 패하기 이전에 당시의 요동에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약 이미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記』 및 『通典』의 내용에도 정확하게 부합하는 河北省 保定市 徐水區의 遂城鎮이 확실한 燕長城의 북단 및 동단이다. 徐水區는 易縣의 남쪽에 붙어있다. <그림 7>은 譚其驥의 『中國歷史地圖冊』에 수록된 燕長城의 지도이다.⁵⁷⁾



<그림 7> 燕長城 지도

燕長城의 북단이자 동단이 있는 河北省 保定市 徐水區 일대를 지나 북쪽에 쌓은 성들은 北魏와 北齊가 쌓은 것으로 각각 5세기와 6세기에 쌓은 것이다. 이마저도 山海關까지 장성을 연결한 것은 明나라

군이 약탈로 왕이 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史記』 『秦始皇本紀』는 “二十一年 王賁攻荊乃益發卒詣王翦軍遂破燕太子軍取燕薊城得太子丹之首燕王東收遼東而王之(21년, 왕분이 형을 공격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를 더 뽑아 왕건의 군대에 파견하니, 마침내 燕 태자의 군사를 격파하고 燕의 薊城을 점령했으며, 태자 丹의 목을 얻었다. 燕王이 동쪽으로 遼東을 침략하여 그곳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여 燕王 喜가 원래 세력을 가지고 있던 요동으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동으로 침략을 하여 영토를 차지하고 왕이 되었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57) 譚其驥 主編, 『中國歷史地圖冊』 第一冊, 中國地圖出版社, 1982.

때이다.⁵⁸⁾ 따라서 北魏나 北齊, 혹은 明에서 쌓은 장성을 기준으로 古朝鮮이나 高句麗의 영역을 논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燕長城의 동단이 위치한 保定市 徐水區 일대가 바로 과거에는 襄平이고, 遼東郡이었다. <그림 8>은 문헌과 사진자료를 바탕으로 본고가 작성한 古朝鮮 당시의 장성의 위치도이다. 보는 것처럼 <그림 7>과 매우 근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8> 燕長城의 위치, 동단 및 북단

<그림 8>을 보면 중국에서 燕의 전성기인 昭王 때의 도읍이라고 주장하는 易縣이 연장성의 바깥에 위치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易縣은 연장성의 동단을 경계로 양쪽으로 나뉘

58) 山海關區人民政府, 「山海關古城」, 山海關區人民政府 홈페이지, 2013.10, “山海關是万里長城東部起点的第一座關隘, 是明長城三大名關之首, … 古城建于公元1381年 … (산해관은 만리장성 동부 기점 제 1의 요충이다. 명장성의 3대 명관의 첫 번째로, … 고성이 만들어진 것은 1381년이다. …)”; 臧勵勳 等, 앞의 책, ‘山’, ‘山海關’, “明置山海衛於此(명이 산해위를 이곳에 설치하였다)”

며, 薊縣의 중심지라고 본고가 분석한 燕下都는 연장성의 동단 바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7>의 연장성 지도를 보면 燕下都가 연장성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薊縣은 易縣의 남쪽에 위치한 燕下都를 비롯해 徐水區까지 포함한 保定市 일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때 『史記』, 『漢書』, 『太平寰宇記』, 『康熙字典』, 『水經注疏』, 『古今地名大辭典』 등이 설명하는 계현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합하게 될 것이다.

장성의 건축시기와 위치, 여러 문헌들의 기록을 해석하면 遼東郡과 樂浪郡은 분명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太康地理志』, 『晉書』, 『通典』 등은 장성이 樂浪郡에서 시작되었음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다.⁵⁹⁾ 하지만 『漢書』 「地理志」 「幽州」에는 遼東郡과 樂浪郡이 다른 지역으로 기록되어 있다.

최초로 漢四郡을 언급한 『史記』 「朝鮮列傳」은⁶⁰⁾ 『漢書』 「武帝紀」와 마찬가지로 衛滿朝鮮이 망하는 시기를 元封 3년이라 기록하고 있다. 다만 『史記』는 四郡이 설치된 해를 언급하지 않았고, 『漢書』는 漢四郡이 같은 해인 元封 3년에 설치되었다고 하였다.⁶¹⁾ 또 『史記』는 四郡의 이름이나 위치를 기록하지 않은 반면, 『漢書』는 四郡의 이름과 지명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漢書』의 기록은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漢書』 「地理志」는 樂浪郡을 元封 3년에⁶²⁾, 玄菟郡을 元封 4년에 설치하였다며⁶³⁾ 『武帝紀』에서 한 말을 이유 없이

59) “樂浪遼東城縣有碣石山 長城所起”, 『太康地理志』가 원문으로 위사일 가능성도 있다.

60) 『史記』 「朝鮮列傳」. “以故遼定朝鮮爲四郡” 朝鮮을 평정하고 四郡을 설치한 사실만 기록되어 있다.

61) 『史記』 「朝鮮列傳」. “元封三年夏尼谿相參乃使人殺朝鮮王右渠來降”
漢書 「武帝紀」, ‘元封三年’. “河朝鮮斬其王右渠以其地爲樂浪臨屯玄菟眞番郡”

62) 『漢書』 「地理志」, ‘幽州-樂浪郡’. “樂浪郡武帝元封三年開”

번복하고, 『五行志』에서는 다시 元封 6년에 朝鮮을 정벌하고 三郡을 설치하였다고 하면서 『武帝紀』나 『地理志』와 또 다른 내용을 말한다.⁶⁴⁾ 『漢書』는 보다 중요한 ‘紀’에서 한 말을 ‘志’에서 두 번이나 이유 없이 뒤집고 있다. 역사에 정통한 班固가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어처구니가 없는 실수로 『漢書』의 해당 기록이 사실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아닐까 생각한다.

『史記』 「朝鮮列傳」은 朝鮮을 평정하여 四郡을 설치하고 參, 陰, 峽, 長降, 最를 제후로 봉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⁶⁵⁾ 기록대로라면 漢은 衛滿朝鮮을 멸한 것이 아니라, 제후가 된 이들과의 화약을 통해 右渠를 제거하고 이들에게 朝鮮의 영토를 나누어 다스리게 한 것이다.⁶⁶⁾

63) 『漢書』 「地理志」, ‘幽州-玄菟郡’. “玄菟郡武帝元封四年開”

64) 『漢書』 「五行志」. “元封六年秋兩將軍征朝鮮開三郡”

65) 『史記』 「朝鮮列傳」. “以故遂定朝鮮爲四郡封參爲漑清侯陰爲狄苴侯峽爲平州侯長降爲幾侯最以父死頗有功爲溫陽侯”

66) 『史記索隱』과 『史記集解』에는 이들 제후가 봉해진 지역이 나온다. 『史記集解』는 襄駟이 남북조시대에 쓴 것이고, 『史記索隱』은 司馬貞이 당나라 때에 썼다. 이들 기록은 『漢書』 이후 중국문헌들이 특히 영토와 관련한 조작들을 의심받는 시기에 만들어져서 무조건 신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고·당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史記索隱』을 쓴 司馬貞의 관점은 더욱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이들 기록을 그대로 믿는다 해도 문제는 발생한다. 특히 『史記索隱』은 이들 제후가 봉해진 지역을 정확하게 제나라, 발해, 하동, 제나라 지역이었다고 지목하고 있다. 고조선을 평정하였다면 응당 해당 지역에 이들을 봉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들이 봉해진 지역이 고조선의 영역이라면 산동, 하북성, 산서성 등이 고조선의 영역이었다는 것을 말한다. 만일 봉해진 지역이 고조선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제후들은 어떻게 하고 이들을 그 지역에 봉할 수 있었다는 것일까? 새로 정복한 나라의 인물들을 정복한 영토가 아닌 기존의 한나라 영토에 제후로 봉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지역의 습속이나 문화, 이들 제후가 가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들은 당연히 조선에 봉해졌다고 보아야 한다. 산동, 산서 등이 조선의 영역이 아니라면 이들은 다른 곳에 봉해졌어야 옳다. 예를 들면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한 고구려의 보장왕을 요동주 도독으로 삼고 조선왕으로 봉해서 요동지역에서 남은 백성들을 수습하여 안정시키도록 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고구려의 왕이나 후손들에게 안동도

漢이 衛滿朝鮮과 전쟁을 하던 시기를 살았던 司馬遷도 四郡의 실체를 기록하지 못했는데 200년이 지난 후대의 사람인 班固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실체를 알 수 있었을까. 같은 사건을 놓고 왜 司馬遷은 평정이라 하고, 班固는 멸하였다 기록한 것일까. 『漢書』의 기록은 합리적인 의심의 소지가 다분하다. 살펴본 『漢書』의 「武帝紀」, 「地理志」, 「五行志」의 漢四郡 기록은 후대의 조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때문에 이를 인용한 『太康地理志』, 『三國志』, 『後漢書』, 『晉書』, 『通典』 등의 樂浪郡 기록도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

다만 신채호의 말대로 樂浪이 平壤처럼 도회를 뜻하는 일반명사라면 樂浪은 여러 시기에 걸쳐 여러 곳에 있었을 것이고,⁶⁷⁾ 『太康地理志』, 『晉書』, 『通典』 등의 기록 역시 위사가 아니라면 遼東郡과 襄平縣은 다른 시기에 樂浪郡과 遂城縣⁶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가능성

호부나 안동부의 도독을 맡긴 것 역시 점령한 지역을 그 지역 출신 명망가를 통해 민심을 수습하고 수월하게 다스려 보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다.

67) 신채호, 「평양패수고」, 『조선상고사연구초』, 조선도서주식회사, 1929, 58~59쪽.

68) 宋代의 지리지인 『太平寰宇記』에서 “十三州志云河間有新城故加北字後魏武帝永熙二年於此置南營州改爲新昌縣隋開皇十六年改爲遂城縣今治釜山村秦築長城起首故此邑之界遂城山舊名龍山在縣西二十五里(『13주지』에서 이르기를, 河間에 新城이 있어서 北字를 더하였다. 後魏 武帝 永熙 2년(533년)에 이곳에 남영주를 설치하였다가 신창현으로 고쳤다. 지금의 치소는 부산촌이다. 진나라가 쌓은 장성이 이곳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읍의 경계를 遂城山이라 하였다. 옛 이름은 龍山인데 현의 서쪽 25리에 있다)”고 하였다. 수성의 이름이 어떻게 유래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다. 역시 宋代의 문헌인 『武經總要』는 “廣信郡治遂城縣 戰國時武遂縣地 秦築長城所起因名遂城 本朝建軍 東至安肅軍 二十里西至長城(광신군의 치소는 수성현이다. 전국시기 武遂縣의 땅이다. 秦나라 장성이 일어난 곳이라 하여 수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본조(송나라)가 군을 세웠다. 동쪽에는 安肅郡이 있고, 군에서 20리 서쪽에 장성이 있다)”고 하여 역시 장성이 시작되어 수성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하였다. 이들 문장과 『太康地理志』, 『晉書』, 『通典』 등에 등장하는 “樂浪遂城縣有碣石山 長城所起(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으며 장성이 시작된 곳이다)”라는 문장을 비교해 보면 낙랑군 수성과, 『太平寰宇記』 및 『武經總要』

이 있다.

燕, 秦, 漢 시기를 기준으로 장성의 동단인 襄平의 조건을 갖춘 곳은 保定市 易縣 일대이다. 易縣 인근의 徐水區 遂城鎮에는 중국의 문물당국이 인정한 燕長城의 유적이 남아있어서 이곳이 장성의 북단이자 동단이며, 襄平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徐水區는 易縣과 남북으로 붙어있고, 燕下都가 그 중간지대에 위치한다. 따라서 遼東郡의 치소 襄平은 지금의 保定市 易縣과 徐水區를 포함하는 지역이었을 것이다. <그림 9>은 保定市 徐水區의 遂城鎮에 위치한 遂城유적이며, <그림 10>은 중국문물당국이 燕長城 유적에 붙여놓은 표지판이다.



<그림 9> 서수구의 수성진의 遂城遺蹟 <그림 10> 수성진 장성유적의 표지판

등에 등장하는 수성이 서로 다른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이들 문헌 모두가 수성은 갈석산이 시작된 한 곳임을 지목하고 있다. 수성현은 과거 명칭이 무수현, 양평현, 혹은 다른 어떤 그 무엇이었던 간에 장성이 시작된 遂城이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사료를 비판적으로 본다면 『太平實字記』와 『武經總要』는 宋代의 문헌으로 『漢書』, 『水經注』, 『晉書』, 『舊唐書』, 『新唐書』 등 영토나 지명에 대한 왜곡이 이미 굳어진 이후의 문헌으로 매우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遂城縣이라는 이름은 그전부터 있었던 ‘遂城’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며, 保定市 徐水區 遂城鎮에는 遂城 뿐 아니라 연장성의 유적도 발견되므로 위의 여러 문헌이 지목하는 바로 그 遂城이 있는 곳임을 알 수 있다.

襄平, 安東都護府, 安東府는 시기와 필요에 따라 이름이 바뀌었을 뿐 정확하게 같은 곳을 가리키는 지명이며, 이들 지역은 모두 遼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다.

한편 『通典』 「州郡」에는 “盧龍은 漢의 肥如縣으로 碣石山이 있는데 바다의 옆에 우뚝 서 있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晉의 『太康地理志』가 이르기를 진장성이 시작된 곳은 高麗의 구계이며. 이 碣石⁶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⁷⁰⁾는 기록이 있다. 또한 같은 책 「邊防」은 “장성이 동으로 遼水를 넘어 高句麗로 들어갔는데 이 유지가 여전히 남아있다.”⁷¹⁾고 하였다. 기록을 따르다면 장성의 동단이 동으로 拒馬河를 건너 高句麗의 영역에 있었다는 것으로, 白石山과 易縣, 徐水區 일대가 高句麗의 영역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北京과 保定, 石家莊 일대에는 지금까지도 高句麗와 관련된 여러 지명들이 남아 있어서 과거 이 지역이 高句麗의 영향을 받았던 지역이었음을 추정케 한다. 예를 든다면 高麗營鎮, 高麗村, 高麗園, 高麗鋪村, 琉璃廟, 高碑店市 등 高句麗라는 명칭과 직접 연결되는 이름들과 白巖, 建安, 新城, 石城, 南蘇, 遼城 등의 高句麗의 城 이름들이 오늘날의 지명으로 남아있으며, 특히 이들 중 高麗營鎮과 高麗營村은 高句麗의 군대가 주둔하였던 곳을 의미하므로 이들 지명이 남아있는 北京 및 長家口 등은 일정시기 高句麗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9) 지금의 창려현 갈석산을 말한다.

70) 『通典』 「州郡」, “盧龍漢肥如縣有碣石山碣然而立在海旁故名之晉《太康地志》云秦築長城所起自碣石在今高麗舊界非此碣石”

71) 『通典』 「邊防」 ‘東夷’, “長城東截遼水而入高麗遺址猶存”

IV. 맺는말

중국의 고고학계는 1929년대부터 50여 년간 발굴을 진행하여 河北省 保定市 易縣의 경내에 있는 燕下都 유적이 燕의 전성기 도읍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易縣의 서쪽에 위치한 白石山을 碣石山으로 추정하였고, 碣石山에서 遼水가 발원한다는 『淮南子』, 『山海經』 등의 기록에 근거해 白石山에서 발원하여 易縣을 감싸고 흐르는 拒馬河를 遼水로 추정하였다. 또 확인된 碣石山과 薊縣, 遼水の 위치로부터 遼東과 遼西의 범위 역시 추론할 수 있었으며, 保定市 徐水區에 있는 遂城鎮의 장성 유적을 근거로 장성의 동단과 樂浪郡 遂城縣, 遼東의 襄平縣 등의 위치도 추론할 수 있었다.

한편 碣石山 등의 위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保定, 北京, 石家莊, 長家口 등지에 高句麗와 관련된 수많은 지명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지명의 존재는 해당 지역들이 고대에 高句麗나 古朝鮮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고증한 薊縣, 碣石山, 遼水, 遼東 등의 위치에 근거하여 한반도에 漢四郡이 있었다는 주장이나, 遼水가 지금의 遼河라는 주장은 그다지 신빙성 있는 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한때 많은 지지를 받았던 灤河가 요수이며, 秦皇島市 昌黎縣 碣石山이 古朝鮮과 燕의 경계를 의미하는 碣石山이라는 주장 역시 정확한 고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碣石山을 고증하기 위해 문헌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漢代 이후의 사료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사료가 아닌 원전에서 언급한 의미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부득이하게 훗날의 기록이나 주석을 이용하게 되더라도 마땅한 합리적인 의심이나 과학적인 판단으로 해당 문헌을 여과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고고학이나 과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기록에 대해서는 왜 이런 기록을 남겨야 했는지 당시의 시대적인 정세나 사회적 배경을 의심해봐야 할 것이다. 또 과거에 정설처럼 여겨진 주장도 옹당 의심해야 할 반론의 근거가 있다면 기존의 입장을 돌아보는 합리적 성찰도 필요할 것이다.

원전이 중요한 것은 일정사건에 대한 ‘기록’의 역사적 성격과 시점으로 볼 때 대체로 해당사건 이전에 생산된 문헌이 객관적이고 보다 정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이 발생하고 이해 당사자가 된 후에 생산한 문헌은 어떤 형태로든 왜곡, 과장, 축소 등의 조작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당시의 사회가 황제나 군주 한 사람에게 의해 절대적인 권력이 행사되고 있던 때라면 그러한 확률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조선이나 고구려의 영역을 비정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와 직접 갈등을 겪은 당사자들이 기록한 『魏略』, 『後漢書』, 『水經注』, 『晉書』, 『三國志』 등과 이들 문헌을 그대로 인용한 후대의 『資治通鑑』, 『舊唐書』, 『新唐書』 등을 주요 전거로 사용한다면 객관적인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고구려나 고조선을 의식하지 않고 집필한 기록들이 분석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이후에 집필된 문헌들도 원전의 문헌과 기록을 통해 재고증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 투고일자 : 05. 24 심사일자 : 06. 09 게재확정일자 : 06. 10

〈참고문헌〉

1. 원전자료

『山海經』, 『書經』, 『淮南子』, 『鹽鐵論』, 『史記』, 『戰國策』, 『漢書』, 『說文解字』, 『通典』, 『呂氏春秋』, 『水經注疏』, 『晉書』, 『舊唐書』, 『新唐書』, 『太平寰宇記』, 『康熙字典』

2. 연구서

- 윤내현, 『사료로 보는 우리 고대사』, 만권당, 2017.
- 윤내현, 『고조선 연구』 상·하, 만권당, 2015~2016.
- 김인희, 『소호씨 이야기 : 산동 다윈커우 동이족의 탐색과 발견』, 물레, 2009.
- 최술 저, 이재하 외 옮김, 『수사고신록』, 한길사, 2009.
- 한국고고학회 편, 『한국고고학 강의』, 사회평론, 2007.
- 우실하, 『(동북공정너머) 요하문명론 : 대중화건설을 위한 중국의 21세기 국가전략』, 소나무, 2007.
- 오영찬, 『낙랑군연구』, 사계절출판사, 2006.
- 이덕일 외, 『고조선은 대륙의 지배자였다』, 역사의 아침, 2006.
- 송호정, 『한국고대사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 노태돈,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1.
- 이덕일, 「한사군은 어디에 있는가」, 『한국사 그들이 숨긴 진실』, 역사의 아침, 1995.
- 신채호, 『단재신채호전집』,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형설출판사, 1995.
- 신채호, 『조선사연구초』, 경성, 조선도서주식회사, 1926.
- 리지린, 『고조선연구』, 열사람, 1989.
- 유. 엠. 부쩨. 『고조선』, 보진재, 1986.
- 이병도, 『한국고대사 연구』, 박영사, 1976

3. 연구논문

- 장우순·문치웅, 「고대사에 대한 중국문헌의 역사 인식 변화」, 고조선단군학 37호, 2017.
- 북기대, 「한사군의 인식에 관한 연구1」, 『몽골학』 49호, 한국몽골학회, 2017,
- 북기대, 「전한의 동역 4군 설치 배경과 그 위치에 관하여」, 『인문과학연구』

제 52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 공석구, 「진 장성 동단인 낙랑군 수성현의 위치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81집, 한국고대사학회, 2016.
- 복기대, 「고구려 평양위치 관련 기록의 검토 : 일본학자들의 장수왕 천도설에 대한 재검토」, 『일본문화학보』 제69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16.
- 이승수, 「溟水說散考 : 요동패수설의 흐름과 전망」, 『溫知論叢』 43집, 온지학회, 2015.
- 박대재, 「고조선과 제의 해상교류와 요동」, 『한국사학보』 57호, 고려사학회, 2014.
- 박선희, 「동천왕 평양성시기의 금관과 요서수복」, 『백산학보』 96호, 백산학회, 2013.
- 오현수, 「고조선 형성과 변천과정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오현수, 「『회남자』 기재를 ‘갈석’과 ‘요수’를 통해 본 전기 고조선의 중심지」, 『정신문화연구』 통권 129,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겨울.
- 김진경, 「갈석산의 위치 비정에 관한 연구」, 『선도문화』 제15집, 국학연구원, 2013.
- 김진경, 「고대 요수의 위치 비정에 관한 연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박준형, 「기원전 3~2세기 고조선의 중심지와 서계의 변화」, 『사학연구』 제 108호, 한국사학회, 2012.
- 김연주, 「선진 시기 산동성 지역 ‘동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동아시아학연구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011.
- 복기대, 「임둔태수장 봉니를 통해 본 한사군의 위치」, 백산학보 126호, 2009.
- 김중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위치 비정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오강원, 「고조선의 溟水와 沛水」, 『강원사학』 13, 14호, 강원대학교사학회, 1998.
- 윤내현, 「고대 한겨레의 활동 영역 : 북방대륙과 관련하여」, 『한국민속학보』 제 4호, 한국민속학회, 1994.
- 서영수,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 시민강좌』 2, 일조각, 1988.
- 윤내현,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군사』 8, 국방부군사편찬위원회, 1984.
- 천관우, 「기자고」, 『동방학지』 15, 연세대동방학연구소, 1974.

이병도, 「고조선사군강역고」, 『한빛』 통권 4, 5, 6호, 한빛사 1928.

4. 외국자료

- 揭秘“燕下都”：原來“燕趙”的“燕”来源于这儿」, 『河北日報數字報』, 2016,
薛國屏, 『中國古今地名對照表(續)』, 上海辭書出版社, 2014.
北京市西周燕都遺蹟博物館, 『河北易縣燕下都遺蹟』 2013.
朱宇迅 著, 朱京巍 主編, 『紅山文化玉器研究』, 北京, 中國書店, 2012.
中國水利部黃河水利委員會, 「黃河下游河道變遷」, 2011.
郭大順, 『紅山文化考古記』, 沈陽, 遼寧人民出版社. 2009.
河北省文物研究所, 『燕下都』, 北京, 文物出版社, 1996.
石永士, 『燕下都故城初步研究』, 河北省文物研究所, 1984.
譚其驥 主編, 『中國歷史地圖集』, 地圖出版社, 1982.
黃景略, 「燕下都城址調查報告」, 『考古』, 1962.
臧勵蘇 等, 『中國古今地名大辭典』, 上海商務印書館, 1931.
王國良, 『中國長城沿革攷』, 商務印書館, 1928.
那珂通世, 「朝鮮樂浪玄菟帶方考」, 『史學雜誌』 5-4, 1894.
稻葉岩吉(「秦長城東端及王險城考」, 『史學雜誌』 21-2, 1910.

〈Abstract〉

A study on the location of Galseoksan in Ancient Times

Jang, Wu-Soon·Moon, Chi-Ung

Jixian (薊縣), the capital of Yan in Warring Country Period proved to be the place corresponding to the current Yanxiadu (燕下都) at Yixian (易縣) in Hebei Province of China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archaeological survey and literature record on remains of Yanxiadu or Suicheng.

Galseoksan (碣石山) is the mountain serving the boundary between the ancient Chinese countries and Dong Yi countries.

Galseoksan (碣石山) was able to uncover the fact that it was Baishi-Mountain, the northernmost of Taihang-Mountain (太行山脈), located near Yixian, after examining the remains of the Great Wall, Huangjintai ruins erected in front of Galseoksan (碣石山), and the contents recorded in ancient Chinese literature.

Liaoshui (遼水) originates from Baishi Mountain (白石山) and is estimated to be Jumahe (拒馬河), which flows around Yixian (易縣).

Also, because of the remains of the Great Wall of Yan and the Suicheng (遂城) Ruins in the Suichengzhen (遂城鎮) at Xushuixian (徐水縣) in the south of Yixian (易縣), this place could be presumed as Naklanggun (樂浪

郡) Suichengxian (遂城縣).

According to the review, Jixian (薊縣), Gaiseoksan (碣石山) and Liaoshui (遼水) were situated at the central or southern part of Hebei Province, not the north of Hebei Province or Liaoning Province. Through the confirmation of their locations, we imagine that the Korean researchers tend to underestimate the territory of Gojoseon (古朝鮮) or Goguryeo (高句麗).

※ key words : Gaiseoksan(碣石山), Baishi Mountain(白石山), Liaoshui(遼水), Jixian(薊縣), yanxiadu(燕下都), Gojoseon and Goguryeo.